

중국 명·청 시대 민간청화 회화의 민속성과 예술성 융합에 관한 연구

백연연¹, 손열¹, 김원석^{2*}

¹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²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Fusion of Folklore and Artistry of Folk Qinghua Paintings in Chinese Ming and Qing Period

Bai JuanJuan¹, Sun Yue¹, Kim, Won Suk^{2*}

¹Doctoral Student, 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민간에서 생산된 청화자기에 그려진 청화회화의 주제 및 기법 속에 민속성과 예술성이 어떻게 융합되었는가를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한다. 이에 경덕진을 중심으로 한 청화자기의 등장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민간청화자기에서 드러나는 민속성과 예술성에 대해 살펴본다. 관요에서 시작한 청화자기는 명·청 시기를 거쳐 민간으로 확대된다. 민간청화회화는 그 소비자가 민중인 만큼 민속적인 소재들을 화제로 사용하였고, 개인의 감성을 투영한 자유분방한 선들이 도자기 위에 그려졌다. 그러므로 관요와는 다른 미감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간청화회화의 발전은 우리의 물질세계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의 특수한 정신세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주제의 민속성과 예술성이 완미하게 결합함으로써 도자회화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주제어 : 청화회화, 민간청화회화, 사의, 생동감, 예술적 융합

Abstract As an important branch of decoration of blue and white painting, folk blue and white painting not only has a very long history, but also has a very distinctive folklore and artistry.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s an important period, in the development of the folk blue and white painting, the folk craftsmen through long-term study and practice, constantly familiar with drawing technique to master the method, combining folk life form, and folk painting decorative expression aesthetic demand, thus make the painting MinSuXing and artistic expression continuously into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painting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become an important and indispensable component of ceramic decoration.

Key Words : Folk blue-and-white porcelain Painting Folklore Artistry Fus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경덕진(景德鎮)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청화자기는 크게 어요창(御窯廠)에서 관리한 관요자기와 민간자기로 구

분할 수 있다[1]. 경덕진은 송나라 경덕제 때 관요지로 설치되었다. 명대 중기 이전에는 통치계급의 취향을 반영한 관요청화회화 위주였다가 이후에는 민간청화회화가 비로소 점차 발전하게 된다. 청(靑 1616~1912)에 이르면 자기를 장식하는 그림으로서 민간의 청화회화(靑花繪畫)가

*Corresponding Author : Kim, Won Suk(wskim1188@naver.com)

Received June 11,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Revised July 25,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왕성하게 발전한다. 이렇듯 민속문화예술과 예술공예가 서로 결합하여 민속생활이 예술심미의 안으로 녹아들었으니 명·청(明·靑)시기의 민간청화회화는 도자회화의 발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연구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청대 경덕진의 관요와 민간요는 처음에는 관요가 중심이었다라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관탑민소’라는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되므로 실상은 양자의 관계를 단순히 정리하기는 어렵다[2].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민간에서 생산된 청화자기에 그려진 청화회화의 주제 및 기법 속에 민속성과 예술성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에 먼저 관요와 민간요의 문양을 비교하여 양자의 관계를 조망해 보고, 명대 중기 이후로 그리고, 청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민간청화자기에서 민속과 예술이라는 이질적 키워드가 어떻게 자기의 화면에서 융합되었는지를 회화(繪畵)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민간청화자기의 등장과 관요와의 차이

2.1 민간청화자기의 등장

청화자기(靑花瓷器)는 유하채(釉下彩)가 특징이다. 코발트, 망간, 철 등을 함유한 광물질 안료로 표면에 푸른색 그림을 그려낸 자기이다[3]. 제작방식을 간단히 소개하면, 자기의 반완성품인 배체(坯體) 위에 채화장식하는 밑그림을 그린다. 뒤이어 다시 청백유(靑白釉)를 한 층 덧씌워서 고온(약 섭씨 1300도)에 넣어 자기로 구워내면 남색(藍色)의 무늬가 그려진 자기가 나타난다[4]. 그러면 유약의 질감은 맑은 옥과 같이 빛나는 밝은 느낌이다. 백색 가운데 청색이 드러나 깨끗하고 고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술적 매력과 심후한 민족적 색채가 풍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명·청대의 청화자기의 장식은 원(元)대의 장식을 기초로 개선 발전하여 점차 도자예술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였다[5]. 명나라가 정치가 안정되면서 국내외의 시장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명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도자산업도 변화한다[6]. 명나라 초기에 경덕진(景德鎮)에 어요창(御窯廠)을 설립하여 관요에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자기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관요(官窯)에서 생산된 자기는 중국황

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100개를 구워 하나를 골라낼 정도로 관요자기로써 엄선하였다. 명나라 선덕제(1426~35)와 성화제(1465~87)의 재위 기간 동안 경덕진에서 우수한 품질의 청화자기를 많이 생산했다[7]. 이후 청나라 때까지 청화자기는 자기의 주류를 이루었다. 명·청의 교체를 거치면서 명대의 수공업이 가지고 있던 폐단을 개혁하였고, 청나라 강희제(1661~1722)이후로는 ‘관탑민소(官搭民燒)’, 즉 관에서 쌓아두면 민간에서 굽는 방식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8].

청화자기의 재료는 고령토라 불리는 좋은 흙과 원나라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서역을 통해 들어온 회청(回靑)이라는 안료이다. 명·청대의 청화자기도 이 회청(回靑)에 의지하여 생산되다가 이후로는 중국산 안료인 토청을 사용했다. 청화는 코발트를 먹과 같이 풀어서 수묵화처럼 붓으로 그린다. 회청과 토청은 코발트 안료에 섞인 망간과 철의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소성(燒成)이후 그림의 발색이 달랐다[9]. 이러한 안료의 변화는 명·청대 생산된 청화자기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민관협력체계는 관요의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가 민요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명말청초기의 민요는 아직도 조잡하고 유약이 회청빛을 띠는 것이 많았다. 물론 그 가운데는 발색이 우수하고 세련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청화자기의 생산확대에는 내정불안과 토목의 변으로 불리는 외침으로 인해 관요인 경덕진 중심의 생산체계가 무너진 탓도 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10].

2.2 관요(官窯)와 민요(民窯)의 문양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관요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에 도안하는 장식은 반드시 관리하는 관청에서 내주는 양식을 엄격하게 따랐다. 또한 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을 보증하는 낙관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관요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장인(匠人)들은 자기를 굽거나 청화를 그리거나 그 밖의 장식을 하는데 양식적으로나 기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늬로 그려진 그림은 정밀하고 화려하지만 도리어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생활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관요에서 생산된 청화자기는 수출상품으로서 해외로 흘러갔다. 청화자기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 된 명·청대는 유럽의 문예부흥기에 맞물려 유럽에 중국풍을 일으키기도 하였다[11]. 동서 무역상품으로서 청화자기는 OEM 방식을 띠기도 하였으며, 관요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

기 위해 연호를 찍어 넣기도 하였고, 주문한 국가의 기호에 맞춰 중국적이지 않은 문양을 그려 넣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Fig. 1, 2참고).



Fig. 1. Bowl with Chenghua Year



Fig. 2. Plate with Persian letters

관요에서 생산된 청화자기 중 일부는 황실(皇室)에서 사용되는 어용(御用) 기물로서 그 장식은 용과 봉황 등 길상과 여의문(如意紋)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황실의 기물로서의 청화자기의 무늬나 장식은 민간 도공들이 제작하거나 구워내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므로 관요청화자기의 장식과 생산은 단일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민요(民窯)에서 생산된 청화자기는 대부분 민간생활에 쓰이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려지는 회화의 주제는 관(官)의 속박을 받지 않고 세속화되고 민속화 된 형식을 드러냈다. 내용은 시정(市井)의 풍속과 민중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장인들이 주제를 뽑아내는 것이 풍요롭고 다양해졌다.

민간청화회화의 장인들은 관요의 회화장식, 구도양식 등을 일부 흡수하였고 일부 관요청화회화의 무늬와 형식 등이 민간에서 자기에 청화회화를 그릴 때 융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를 꾸미는 유하채(釉下彩)기법은 관요와 민요의 융합을 통해 더 다양한 주제와 운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노는 아이의 모습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관요와 민요의 그림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관요의 그림은 복잡하고 짜여진 느낌을 주는 반면 민요의 그림은 여백이 많고 그림에 생동감이 풍부하게 나타난다(Fig. 3, 4 참고). 산수를 주제로 한 경우에도 민간의 그림이 보다 여백이 살고 붓의 사용이 부드럽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Fig. 5, 6 참고).



Fig. 3. Qing official Qinghua yingxitu



Fig. 4. Qing folk Qinghua yingxitu



Fig. 5. Qing official Qinghua shansh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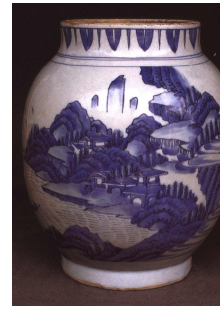


Fig. 6. Qing folk Qinghua shanshui

자기의 생산이 확대되고 민간에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자기에 사용되는 그림은 세속화 풍조를 보이고 이전의 관요와는 달리 민간청화회화의 스타일이 점차 다양해졌다. 그림 중에는 점차 관요의 단일한 도안 형식에서 벗어난 것들이 나타나고 화면의 배치 또한 더욱 대담하고 자유로워졌으며 화면의 형식은 과장되고 개인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인민대중의 심미적 욕구에 부합하였다.

3. 민간청화회화의 민속성과 예술성의 융합과 발전

3.1 민간청화회화에 나타는 민속성

민간에서 향유하는 문화와 습속 등을 '민속'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적'이라는 말은 집단성과 반복됨이라는 시간성을 갖는다[12]. 민간에서 사용되는 자기의 민간청화회화의 주제와 내용은 그러므로 민속적이다. 특히 민간에서 유통되는 자기의 양이 늘어나고 생산과 사용의 주체가 민간이 될수록 거기에 나타나는 심미(审美)적 장식의 표현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민중의 생활 가운데 각종 활동 장소와 사물은 회화(繪畵), 조소(彫塑)의 과정에서 민중의 요구와 장인의 취향에 맞춰 취사선택 되었고, 사의(寫意)하는 부호언어가 대중의 시야에서 출현한다. 이러한 특수한 부호는 부득불 하나의 새로운 예술심미(审美)의 형식을 다시금 평민백성의 생활 가운데 들여놓게 되었다.



Fig. 7. Qinghua songloc glass

위의 청화송록문주완은 민간청화회화로 장식된 술잔인데 비록 민간에서 쓰인 것이라도 술잔의 모양이 정갈하고 청화의 색채가 아름답다. 관요의 기술이 민간으로 확대된 효과로 볼 수 있다. 화면의 장식은 송록(松鹿)을 주제로 하고 있다. 회화적으로는 화면의 선(線)의 흐름이 생동하며 부드럽고 길고 열음이 분명하여 붓의 움직임이 마치 물길을 타고 움직이는 배와 같다. 화면의 내용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소나무와 사슴이 어우러져 있다. 사슴과 소나무는 모두 장수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가을에 저절로 떨어졌다가 봄에 저절로 솟아나는 사슴이 뿔이 그러하고, 사철 푸른 솔잎 역시 생명과 장수의 상징이다. [Fig. 7]. 청화자기의 민속성은 그림의 주제에서 주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장수와 생명력은 민중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3.2 민간청화회화의 예술성

도자는 식기나 일상생활 도구나 제품으로만 한정치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작가의 의미나 의도를 부여하는 중요한 예술적 표현의 수단이다[13].

민간청화의 민속적 주제는 사의(寫意)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물의 실제에 대한 정밀한 묘사보다는 사물과 교감한 작가의 정신을 표하는 것을 회화의 정수로 보는 것이 사의이다. 사의라는 개념은 송나라 문인화가 발전하면서 동양화의 중심으로 자리한다[14]. 그런데 이런 문인화의 사의의 풍조가 역설적으로 민속회화에서 장식의 표현에 있어서 관요와 같은 도식의 근엄한 질서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였다. 선(線)은 창조 작품 속 주제가 되는 전체적인 흐름, 재료나 색채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배치에 의해 생기는 상상의 모든 선을 가리

킨다[15]. 한 마디로 관요의 청화회화가 근엄함과 정밀함의 극치였다면, 민요의 청화회화는 사대부의 회화에서 시작된 사의(寫意)의 기법이 민간에 스며들어 장인 자신의 간이한 표현을 예술로서 사물의 신운(神韻)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운필에서는 윤곽선의 자유로운 변화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미감이 무심코 드러나도록 하였다. 바탕색과 선의 농담, 청색의 번짐의 효과는 화면 공간의 층차적 관계를 구현한다. 모두 자연스럽게 사물의 미감을 해석하기에 좋고 사물의 모양에서 자연스러운 형태가 무심코 드러나게 한다(Fig. 8, 9 참고).



Fig. 8. Ming folk qinghua giraffe painting



Fig. 9. Qing folk qinghua shanshui-man painting

정리하자면 민간청화회화의 예술성은 민간에서 유통되고 그려지는 것인 만큼 관용으로 그려지는 회화에 비하면 형식미보다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특징이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청화를 그리는 운필의 선(善)의 간략함과 자유분방함으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민간청화회화는 중국민족문화 예술양식의 중요한 부분이다. 코발트 안료를 사용한 청화장식의 기원은 원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전성기는 역시 명·청대이다. 이 시기는 자기생산방식이 발전을 거듭하여 분업과 ‘관탐민소’라는 민관협력체계를 갖추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생산 배경 하에서 백색자기 위의 파란색 그림은 그 어느 때 보다 널리 유통되고 다양한 문양들이 교류할 수 있었다.

특히 민간청화회화에서는 소비자가 민중인 만큼 일상생활의 장면을 도자기 장식에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민중이 소망하고 기원하는 것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소재적인

측면에서 민속성을 갖추었으며 동시에, 회화장식의 수법이 관요와는 달리 다양할 수 있어서, 개인의 감상을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필법을 따라 사의(寫意)하는 운필로 자유분방한 선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다[16].

이와 같은 민속성(民俗性)과 예술성의 융합은 세계적인 수요를 따라 경덕전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의 증대와 이를 감당하기 위한 생산양식의 발전을 기초로 한다고 할 것이다. 청화자기의 민간으로의 확대는 당시 사회 민속생활 아래에서의 중화민족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미적, 예술적 심미의 욕구를 반영한 자기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민간청화회화의 발전은 우리의 물질세계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의 특수한 정신세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주제의 민속성(民俗性)과 사의법의 예술성이 완미하게 결합함으로써 도자회화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REFERENCES

[1] J. Carswell. (2007). *Chinese Porcelain Art, Elegance, and Appreciation*. British. London : Museum Press.

[2] B. H. Baek. (1995). *A Study on Cheonghwa Baekja*. Beijing : Jeil Munwhasa

[3] M. R. Son (2003). *A History of Chinese porcelain Painting*. Beijing : Southeast University press.

[4] China Relic Information Consultation Center, (2005). *Ancient Chinese Ceramic Art*. Beijing :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5] T. K. Cheng & D. K. Zheng. (1984). *Studies in Chinese Ceramics*. Hong Kong. : Chinese University Press

[6] L. L. Fang. (2011). *Chinese Ceramic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J. J. Lee & Y. P. Ju. (2006). *Chinese Cheongwhaja*. Beijing : Shandong FineArt Publishing House

[8] Y. Q. Wang. (2000). *A History of Chinese Economy: Ming dynasty economy*. Beijing. : Economic Daily.

[9] Y. X. Lu. (2014). *A History of Chinese Science and Technology*. Berlin : Springer

[10] C. She. (1986). *A Study on Development of Ming Cheonwha Porcelain*. Taiwan : The Liberal Art Press

[11] O. R. Impey. (1997). *Chinoiserie: The Impact of Oriental Styles on Western Art and Decorati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2] L. Y. Zhāng & L. Y. Chén. (2016). *A Comparison study of China and Western folk*. Beijing : Beijing Book Co. Inc.

[13] K. J. Park & J. W. Choi. (2017). *A Study on Convergence Expression Using Transfer Printing*

Techniques in Contemporary Ceramic A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333-333

[14] Y. T. hán. (1998). *Expresii: Chinese aesthetic soul*. Beijing : Haitian Publishing House

[15] S. G. Ko. (2018). A study of modern metal craft using analytical formative beauty of line and surfa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337-342

[16] H. G. Ma. (1993). *Blue and White Porcelain*. Taipei : Art Book Co., Ltd.

백 연 연(BAI JUANJUAN)

[정회원]



- 2010년 7월 : 중국 징더전도자기대학 과학기술예술학원 도자기예술디자인 전공(학사)
- 2013년 7월 : 중국 징더전도자기대학 디자인예술학원 전통도예와 현대도예 연구전공(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중국 북주대학교 사면공예미술학원(교사)
- 2018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과 세라믹 디자인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도자공예, 디자인
- E-Mail : dongmingyz@navel.com

손 열(SUN YUE)

[정회원]



- 2015년 6월 : 중국 푸젠성 푸저우대학 사면공예미술학원 조각과 도자기미술 전공(학사)
- 2018년 3월 : 중국 푸젠성 푸저우대학 사면공예미술학원 공예미술과 도자기 디자인전공(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과 세라믹디자인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도자공예, 디자인
- E-Mail : sunyue2829@gmail.com

김 원 석(Kim, Won Suk)

[정회원]



- 1984년 8월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 과 졸업(학사)
- 1988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산업공예과 요업디자인전공 졸업(석사)
- 1990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wskim@kongju.ac.kr